

연구분야 및 연구성과 (장경섭, 2022.7.19)

장경섭 교수는 비교근대성, 시민권, 사회체제, 사회이론 등의 영역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과 여타 동아시아 사회들의 사회·경제·정치적 질서의 복합적 구조와 전환에 대한 고유한 이론, 개념,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이에 의거한 구체적 현실 분석에 매진해 왔다. 장교수는 한국 등 탈식민시대 비서구 사회의 현실이 여전히 서구 중심 세계질서에서 보편 기준으로 설정된 서구적 경험, 이념, 제도와의 차이(difference)나 거리(distance)를 중심으로 이해되고, 그 차이나 거리가 실증과학적 분석 대상으로서보다는 주로 실천(정책)적 극복노력의 대상으로서 다뤄지며, 그 결과 토착 현실로서 시민생활과 사회질서는 고유한 성격에 대한 체계적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종의 준거(서구)대비적 변칙성(West-reflexive anomaly)으로 치부되는 (물)과학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사회현실에 만연한 영역간 복합성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구미 사회과학의 학문간 관행적 분업(분절)을 극복하여 적극적인 학제적·융합적 문제 설정에 기초한 독자적 개념·이론화와 이에 의거한 실증적 현실 분석을 시도해 왔으며, 사회학을 넘어 인류학, 개발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에 국제적인 학술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장교수의 학술연구 노력은 구체적으로 (1) 한국 등 탈식민사회들의 압축근대성(compressed modernity), (2) 한국 등 동아시아권의 개발시민권(developmental citizenship)을 포함한 변혁공헌권리(transformative contributory rights)적 시민권, (3) 한국의 실행적 자유주의(liberalism-in-practice)로서의 개발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 및 가족자유주의(familial liberalism) (4) 중국 등 동아시아 탈사회주의 개발체제의 사회제도적 복합성과 유연성으로서의 개발다원주의(developmental pluralism)에 관한 고유한 학설과 분석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는 대다수가 세부 학문영역별로 세계 정상급 권위를 가진 (SSCI 등재) 국제학술지 논문 22편(공저 6편)을 포함한 85편의 국내외 정규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되었고, 아울러 Routledge, Palgrave Macmillan, Wiley Blackwell, Polity Press 등 세계 핵심 사회과학 출판사들을 통한 영문저서(4권), 영문편저(단독 2권; 공동 2권), 영문 사회이론백과사전(전5권, 공편)과 국문저서(단독2권; 공동 2권) 및 국문편저(3권) 출판이 이루어졌으며, 영문저서 2편이 각각 중국어판 및 중국어·프랑스어·아랍어판 번역본으로 출판 예정이다. 아울러, 수많은 국제 학술회의의 기조발표 (영국, 인도, 호주,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및 특별 국제초청강연(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모로코, 홍콩, 덴마크, 영국 등)을 수행하였다. 장교수는 Google Scholar 집계로 (자기인용 포함) 2,889회 피인용을 기록 중이다 (2022.7.19. 기준).

이상과 같은 활약과 성과를 바탕으로 장교수는 서울대(본부) 학술연구상(2015), 한국사회사학회 최재석학술상(2021),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삼복학술상 (2013),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자·우수학자 선정, 캠브리지대학교 Clare Hall (college) life member 선정 (2019), *Phi Beta Kappa* (전미 academic honor society) life member 선정 (1991), 프랑스 The Foundation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FMSH)의 Ulrich Beck Chair 후보(2016; 선정자 없음), 경향신문 “한국의 얼굴 55인” 선정 (2001), 덴마크왕립도서관 이달의 책 선정 (2010), 학술원·문화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019, 2010, 1996) 등의 영예를 얻었다.

장교수의 연구활동과 성과는 국내외 학계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성들을 갖는다. 첫째, 장교수의 여러 학설과 분석은 단순히 한국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특수한 연구를 넘어 세계 주류 사회(과)학계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Ulrich Beck, Bryan S. Turner, Goran Therborn 등 세계 정상급의 사회학 석학들과 공동연구·출판 활동을 수행했다. 우선, 압축근대성은 최근 세계 비교근대성 논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새로운 연구이며,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권위의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의 2010년 비교근대성 특집호는 편집진의 Introduction에 이어 장교수의 2편의 글을 각각 리드논문과 사례논문으로 수록하였다. 아울러 장교수는 세계 최대 사회이론백과사전인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 (5 volumes, 2017)의 출간에 Bryan S. Turner (전)캠브리지대 석좌교수·(전)호주사회학회 회장, Cynthia Epstein (전)미국사회학회 회장 등과 함께 공동편집인으로 위촉되었고 그 핵심 내용인 modernity/coloniality/development 섹션을 책임편집하고, 나아가 Asian social theory 섹션을 제안하여 책임편집했다 ([연합뉴스], 2017/12/28). 개발시민권, 변혁공헌권리로서의 시민권 등 한국·동아시아 시민권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세계 시민권학의 아시아적 적합성을 모색·확립하는 결정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Citizenship Studies* 는 2012년과 2020년에 장교수를 한국과 중국에 관한 특집호 특별초청 편집인으로 위촉하였으며, 장교수의 2022년 저서 *Transformative Citizenship in South Korea: Politics of Transformative Contributory Rights* (Palgrave Macmillan)에 대해서 그동안 서평이나 서평논문을 실지 않는 관행을 깨고 이 저서를 중심으로 최근 동북아시아 시민권 관련 연구를 평가하는 서평논문을 게재키로 했다. 그리고 개발자유주의는 이른바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의 경제·산업 정책이 복지, 노동, 교육, 가족 등 사회정책 영역·현안들에 대해 어떠한 구조적인 영향력이나 규정력을 갖는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사회정책 연구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Ben Fine (SOAS), Goran Therborn (Cambridge), Roger Goodman (Oxford) 등 관련 석학들이 특별한 중요성을 인정했다.

둘째, 한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장교수의 고유한 학설과 분석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에서 현지 학자들이 (서구 학문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벗어나) 자신의 나라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아시아적 학문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국립대만대학의 Lan Chia-pei 석좌교수, 싱가포르국립대학의 Wei-Jun Jean Yeung 석좌교수, 교토대학의 Ochiai Emiko 교수, 고베대학의 Yui Kiyomitsu 교수 등 각국 핵심 학자들은 장교수의 학설 자체를 주제로 한 자국 사회나 아시아 연구를 실시했다. 일본 교토대학의 경우에는 문부성의 학문·교육 세계화 장기지원사업인 인문·사회분야 Global Center of Excellence (GCOE)의 국제비교 중심이론으로 장교수의 압축근대성론을 채택하였고, 이와 관련 장교수는 이 사업의 전체 국제회의(2009)에서 특별 기조강연을 하고 그 주요 연구결과인 영문서 2권의 리드잡터를 작성했다 ([교수신문] 2015/1/5). 그리고 장교수는 앞서 설명한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의 Asian social theory 섹션에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지도적 학자들로 하여금 대상 이론·개념들의 선정 및 집필에 직접 참여하여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사회이론 정리를 도모하였다. 또한 프랑스 리옹대학의 Laurence Roulleau-Berger, 영국 요크대학의 Stevi Jackson, 미국 일리노이대학의 Nancy Abelmann 등 동아시아 사회 연구를 선도해 온 구미의 여러 원로 사회과학자들도 장교수 학설을 기초로 자신들의 연구를 수행했다. 프랑스 학술지 *Temporalités*의 "Compressed Modernity" and Chinese Temporalities 주제의 2017년 특집호에서는 편집진(리옹대학 Laurence Roulleau-Berger, 북경대학 Liu Neng)이 Introduction에서 장교수의 압축근대성론을 소개하고 이것의 중국 탈사회주의 전환 과정에 대한 적용 필요성을 설명하고, 장교수의 "China as a Complex Risk Society"를 비롯 각국 학자의 8편의 사례분석 논문을 수록했다. 아시아에 대한 국제 학술출판을 선도하는 Routledge는 이런 추세에 주목해 아시아 각국의 관련 연구성과를 종합하는 *East Asia under Compressed Modernity: Personhood, Intimacy, and Life World* 를 장교수의 편저로서 출판하기로 합의했다.

셋째, 장교수의 압축근대성, 개발시민권 등에 관한 연구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학(Korean studies) 분야의 연구·교육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압축근대성론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 분야의 핵심 학설로 받아들여지는데, 예컨대 세계 한국학계의 중심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The Routledge Handbook of Korean Culture and Society* (Youna Kim, ed., 2017)에 장교수의 압축근대성 논문이 편집자의 Introduction에 이어 전체 리드잡터로 실렸다. 여타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도 인도, 호주 등에서 열린 한국학 국제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하였다. 한국학 가운데, 특히 한류 등 대중문화 연구, 가족·개인 연구, 사회문제·정책 연구, 정치·매체문화 연구 등에서 장교수의 연구성과가 세계 여러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널리 반영되고 있으며, 수많은 학위논문 주제나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장교수 연구의 이러한 기여는 그동안 (인문학계와는 달리) 국내 사회과학계와 일상 분절된 상태에서 해외 한국계 혹은 외국인 학자들의 한국연구 영역으로 진행된 한국학에 대해 국내 사회과학 연구의 유용성을 높이고 또 해외 한국학의 성과를 국내 사회과학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넷째, 장교수는 이상과 같은 국제적 학술활동과 병행해 국내에서의 (국문) 학술논문·저서 출판 및 학술발표도 활발히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 사회(과)학과 세계 사회(과)학의 유기적인 상승발전을 도모해 왔다. 장교수는 한국의 역사·사회적 현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과)학계의 세계주의적 전환(cosmopolitanization)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개념·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출판 논문·저서들에 국내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성과를 풍부하고 면밀히 반영했을 뿐 아니라, 해당 연구내용들에 관련해 국내 동료학자들의 평가, 조언, 참고,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꾸준히 국문을 통한 학술 출판·발표를 수행해 왔다. 장교수의 국문저서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근대성의 미시적 기초](2009)와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2018)는 가족·젠더·인구·복지 연구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왔고 수많은 관련 연구활동을 촉진시켰다. 아울러 근대성, 시민권, 생활세계, 개발정치 등에 대한 다수의 국제회의 개최 및 영문편저 출판을 통해 세계 석학들과 국내 주요 사회(과)학자들 사이의 학술적 교류·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한국 사회(과)학의 세계주의적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또한 전북대학교의 SSK 사업 "개인기록과 압축근대" 연구단(2011-17; 단장 이정덕)이 장교수의 압축근대성론을 중심 이론으로 채택하였고, 장교수는 이 사업의 국제학술회의 및 연구총서 출판에 참여했다.

앞으로 수년간 장교수는 이른바 세계적 아시아 시대의 사회(과)학적 보강을 위해 특별히 매진할 계획인데, (1) 첫째, 압축근대성, 변혁공헌권리 시민권, 실행적 자유주의 등 고유 연구주제들의 아시아권 공동연구 추진하고, 이로써 아시아 사회현실 분석의 세계 사회과학적 주류화를 촉진하고, (2) 둘째, 21세기에 급가속중인 아시아권내 산업, 노동, 문화, 교육, 환경 등의 상호 영향·교류·통합 추세, 즉 "아시아의 아시아화"를 새로운 사회(과)학적 의제로 삼아, 그 개념·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 구성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국내외에서 선도할 것이다. 전자에서는 이미 긴밀한 관계인 여러 아시아·구미 학자들과 연구협력을 심화시킬 것이고, 후자와 관련해서 국내 관련학자들과 공동편저, *Asianization of Asia* (Routledge)를 이미 준비 중인데 이 연구네트워크를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한국연구재단 HK사업인 메타아시아 연구의 공동연구 및 출판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대표입적 기술서

단독저서 (최근 저서는 인용회수 표시 생략)

[1] 장경섭 (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비 (53회 인용) => 한국인의 삶에서 가족(중심)주의는 고유한 도덕·문화적 특성을 넘어 개인생애-가족관계-거시체제질서가 체계적·유동적으로 얽힌 압축근대성의 구조적 현실임을 밝혀 학계의 가족·개인·인구·젠더·복지·노동 연구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저술이며, 연구자료로서뿐 아니라 수업교재로서 전국적으로 활용됨. 2010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한겨레], 2009/4/28 서평기사)

[2] Chang, KS (2010),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347회 인용) => 한국의 개발자본주의 산업화 및 사회변동의 가족적 기초, 조건, 효과(보상·부작용)를 압축근대성의 사회제도적 특수성으로서 다측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한국사회 구조와 변동에 대한 거시-미시 연계적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였고, 한국(학) 연구자들뿐 아니라 유사·상응한 현실에 처한 아시아 각지의 학자들과 구미의 아시아 연구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친 저작. 이런 맥락에서, 일본 교토대학의 Emiko Ochiai 교수는 “Chang’s idea of “compressed modernity” has inspired researchers in Asia, including myself”라고 추천문을 썼다. 2010년 5월 덴마크왕립도서관(The Royal Library of Denmark)이 “이달의 책”으로 선정. 중국 청화대학-절강대학 연합 해외학술명저 번역사업을 통해 본서의 중국어번역판이 2023년 출간 예정. (*Korea Herald*, 2010/6/25 서평기사)

[3] 장경섭 (2018),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서울: 집문당 => 한국의 자유주의 체제는 그 미시적 기초로서 형식(공식제도)적 개인주의가 선언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 사생활뿐 아니라 사회, 지역, 국가, 산업·기업, 노동시장, 사회서비스 섹터 등을 막론하고 그 행위·책임의 단위가 가족임을 전제로 작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실행적 차원의 가족자유주의임을 역사·이론적으로 설명했으며, 가족, 노동, 인구, 지역 등 전방위적인 사회재생산 위기가 가족자유주의 체제의 장기적·구조적 부작용에 의한 것임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사회적·정책적 인식 전환을 촉구·촉진한 연구. 2021년 한국사회사학회 최재석학술상 본상 수상. 2019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한국일보], 2019/1/2 서평기사)

[4] Chang, KS (2019), *Developmental Liberalism in South Korea: Formation, Degeneration, and Transnationaliz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본서 주제인 개발자유주의는 한국 등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의 경제·산업 정책이 복지, 노동, 교육, 가족 등 사회정책 영역·현안들에 대해 어떠한 구조적인 영향력이나 규정력을 갖는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사회정책 연구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Ben Fine, Goran Therborn, Roger Goodman (Oxford) 등 관련 석학들이 특별한 중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세계 정치경제학계의 태두인 Ben Fine (SOAS) 교수는 Foreword에서 “We are offered a refreshingly new and interdisciplinary take on social policy, one far from the straightjacket of the hegemonic welfare regime approach. This volume may not be the last word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South Korean social policy but it does offer an admirable lesson in how social policy should be studied”라고 평가.

[5] Chang, KS (2022), *Transformative Citizenship in South Korea: Politics of Transformative Contributory Right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이 책은 한국의 고유한 시민권 체계를 ‘변혁공헌권리(transformative contributory rights)’로 개념·이론화하고 이것이 경제개발, 사회보장, 교육정치, 인구(출산)대책, 문화정책, 위험관리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식민지 해방사회로서 한국의 굴곡진 현대사에 제기된 갖가지 시급한 국가·사회적 현안들에 대처하기 위해 일종의 실존적 집단주의(existential collectivism)로서 구성된 변혁공헌권리 체제는 실제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에 걸쳐 획기적 발전과 성과를 가져왔지만, 그 본원적 속성으로서 집단적 도구주의에 배태된 사회적 선택성, 차별성, 임의성 등으로 인해 구조적인 희생집단들을 누적시켜 왔다. 본서에 대해, 현대 시민권학을 제도적·학술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Bryan S. Turner (전 Cambridge 사회학 석좌) 교수는 Foreword에서, “Chang has, by refashioning much of he legacy of citizenship studies from T. H. Marshall onwards, produced a book of the utmost importance in studying South Korea and other Asian societies” 라고 평가. 세계 시민권학의 최고 학술지 *Citizenship Studies*는 본서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시민권 체제·상황에 대한 특별 서평논문 게재 예정. ([주간경향], 2022/7/18 서평기사)

[6] Chang, KS (2022), *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 Cambridge/New York: Polity Press => 이 책은 한국 등 비서구 사회의 근대화·근대성과 발전 연구에 있어서 압축근대성론의 현실적 적합성 및 유용성, 기존의 지배적 논의들과의 관계와 차이, 그리고 압축근대성의 다양한 구조적 특징들을 설명한다. 본서에서 다루는 압축근대성의 구조적 특징들은 내부다중근대성, 집단적 변혁공헌권리로서의 시민권, 다문화주의에 대비된 복합문화주의, 사회재생산 희생 산업생산 극대화, 사회제도적 결핍 보안을 사회간접자본적 가족주의, 압축근대성의 인구(신체)적 체화 등이다. 비교근대성 논의에서 현존 최고 권위인 Goran Therborn (Cambridge) 교수는 Foreword에서, “An original and fascinating work by a distinguished and globally versed Korean sociologist, critically reflecting on the societies of the multi-faceted ‘compressed modernity’”라고 평가. 이 책은 중국어, 프랑스어, 아랍어 번역판이 출판 예정인데, 중국어판(번역: 安成浩·朴佑 교수)은 절강대학 아시아문명연구원 번역사업으로 출판되며, 프랑스어판(번역: Benjamin Joinau 교수)은 Atelier des Cahiers (Paris)를 통해 출판되며, 아랍어판(번역: Mostafa Rezrazi 교수)은 모로코왕립학술원 아시아프로그램 책임자의 주도로 출판된다. 본서의 후속 저서로 *The Risk of Compressed Modernity* 출판이 마찬가지로 Polity Press와 사전 협의되어 있다. ([한국일보], 2022/6/21 서평기사)

정규학술지 논문 (피인용회수순: Google Scholar 집계치 50회 이상 피인용 논문만 포함)

Chang, KS (1999), "Compressed modernity and its discontents: South Korean society in transtion", *Economy and Society* 28(1): 30-55 [SSCI] (350회 인용) => 학제적 사회이론 분야의 세계 정상급 학술지에 한국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배경으로 압축근대성론을 최초로 소개한 논문으로 사회학, 비교문화학, 한국학에서 널리 인용됨.

Chang, KS (2010), "The second modern condition? Compressed modernity as internalized reflexive cosmopolit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444-464 [SSCI] (222회 인용) => 비교근대성에 관한 구미 학계의 최신 논의에서 압축근대성이 개념·이론적으로 소개된 국제표준적 문헌

Chang, KS & Song, MY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39-564 [SSCI] (199회 인용) => 한국·동아시아 맥락에서 여성들의 급속한 개인화를 개인주의 확산이 아닌 가족의존적 압축근대성의 결과로 분석하여, 세계·국내적으로 개인·가족 변화 연구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며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논문

Chang, KS (1997), "The neo-Confucian right and family politics in South Korea: The nuclear family as an ideological construct", *Economy and Society* 26 (1): 22-40 [SSCI] (89회 인용) => 1990년대 초중반 한국의 "핵가족화에 수반된 사회문제" 논쟁의 이데올로기성을 비판하여, 가족의존(착취)적 사회정책 기초의 개혁을 국내외에서 촉진한 연구

Chang, KS (2010),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Compressed modernity and obfuscated family crisis in East Asia", *Journal of Intimate and Public Spheres* 0(pilot issue): 23-39 (71회 인용) => 일본 교토대학 Global Center of Excellence 사업의 국제회의의 기초강연을 정리한 논문으로 특히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참고·인용됨

Shin, EH, and Chang, KS (1988), "Peripherization of Immigrant Professionals: Korean Physician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2(4): 609-626 [SSCI] (70회 인용) => 미국 의료시장에서 한국계 의사들의 (전공) 주변화가 차별의 결과로서보다는 진입 전략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분석하여 전문직 국제이주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참고되는 논문

Chang, KS (2012), "Economic development, democracy and citizenship politics in South Korea: The predicament of developmental citizenship", *Citizenship Studies* 16(1): 29-47 [SSCI] (68회 인용) => 개발시민권 개념·이론을 기초로 한국의 민주화가 절차적 차원에서 내용(복지)적 차원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급속하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논문

Chang, KS (1994), "Chinese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before and after economic reform: A comparative reappraisal", *World Development* 22 (4): 601-613 [SSCI] (61회 인용) => 중국의 체제개혁과 도시화의 관계를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널리 참고되는 논문.

Chang, KS (2007), "The end of developmental citizenship? Restructuring and social displacement in post-crisis South Kore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42(50): 67-72 (59회 인용) => 한국의 IMF 경제위기 이후 상황에서 노동자 고용체제 교란의 문제를 경제실태를 넘어 개발주의 통치질서 및 시민권체제의 와해로 분석함으로써 세기말 한국의 복합구조적 위기상태를 지적한 연구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인용되는 논문.